

신한승택견의 학습체계

A Study System of the Sin Han-Seong Taekkyeon

박영길
경상대학교

Park, Yeong-Kil
Gyeongsang National Univ*

요약

신한승의 택견은 오늘날 학계에서 '창작된(만들어진) 전통무예'라는 사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송덕기의 택견 11수의 날기술을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무예들의 장점들을 명문화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통택견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한승이 택견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체계화하고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과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근대 택견의 전수자로 유일한 송덕기 택견의 기술 구성은 일정한 체계가 없는 날기술 중심의 놀이 형태로 전래 되었으나, 신한승에 의하여 체계적인 구성을 가진 무예로 발전하게 되고, 급기야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둘째, 신한승은 날기술로 전래되어 오던 택견을 체계화 하면서 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가라테의 수련체계와 기술을 일부 차용하여 근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송덕기 택견이 원형대로 전수되지 않고 변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신한승은 정통 택견에는 없던 급수 구분제도와 실기 심사,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하는 본대비기 12마당 등을 만들고, 스포츠화를 추구하여 현대적인 학습체계와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택견의 원래 형태와 기술변천 및 구성에 대한 시대적·환경적 윤곽을 재조명 할 수 있었으며, 전통화 과정에서 혼재되고 있는 각종 택견 단체들의 논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신한승 | 택견 | 창작무예 |

Abstract

These days Taekkeon of Shin Han-Seong is newly raised as traditional martial which made up in the academic world.. The reason why is that create new shaped Traditional Taekkeon which stipulate good points of systematize Martial Arts to register Song Duck-Ki Taekkyeon eleven figures's a piece of skills to cultural assets.

This research show how Shin Han-Seong make up Taekkyeon to register to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found next conclusion and meaning.

First, skill organization of Song Duk-Ki Taekkeon that is only one modern Taekkeon's initiator have been transmitted for a piece of skills of playing figure which don't have regular system. But Taekkyeon which have regular system have been developed by Shin Han-Seong, finally Taekkyeon is approved to intangible cultural assets. Second, Shin Han-Seong modernized Taekkyeon by borrowing training system of Judo, Fencing, Hapgado, Taekwondo, Karate. But people criticize that Song Duk-Ki Taekkeon is not initiate with original thing. Third, Shin Han-Seong made the grade classification and practical technique screening, Bon-Dae Buigi Twelve part like Pomse of Taekwondo (there is no for traditional Taekkyeon). And he contributed to popularization and modernized learning system by pursuing sportization. Through this research geared up Taekkyeon's original shape and generational outline about skill transition or composition. And it gave important data for understand about Taekkyeon controversy which scattered.

■ keyword : | Sin Han-Seong | Taekkyeon | Creation
Martial Arts |

I. 서론

전통은 많은 뜻을 의미(意味)한다. 사실(事實)에 가깝고, 단 순히 물려받은 것, 유산이라는 의미이며,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래되었거나 물려받은 것을 의미한다. 전통은 물려받은 것이 특수한 형태와 내용이다. 그러나 전통은 물질적 또는 문화적 공헌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은 인간행동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사상과 상상력을 통해 이

루어졌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래되어 왔다. 전통은 인간행동을 형성하는 관행과 제도의 경우를 볼 때, 전통은 어떤 특수한 구체적인 행동이 전수된 것이 아니며, 전통은 현재성, 대중성, 정체성, 변화이다[4].

전통무예는 우리나라에 민족정체성 인식의 무술들이 전승·전수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통무예는 태권도, 택견, 화랑도, 선무도, 불무도, 검도, 국궁 등이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통무예이다. 전통무예에 대한 2005년 4월 30일 생활체육관련 법인 단체현황을 보면 검도 43개, 격투기 6개, 경호무술14개, 권투 3개, 유도 2개, 무에타이 6개, 무술단체 40개, 전통무예 15개, 태권도 19개, 택견 4개, 합기도 38개, 무술기타 80개 단체가 등록되어있다[3, 10]. 이렇게 한국에는 수많은 체육, 무예단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무술단체들 중에서 확실하게 계보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전통무예는 택견이 유일한 한국무술의 뿌리라 할 수 있다[34]⁽¹⁾.

전통 무예(傳統武藝)인 택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올바르게 아는 역사인식(歷史認識)이며, 이러한 신체문화(身體文化)를 재평가하는 작업은 신체를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재교육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6]. 택견은 우리의 몸짓이며, 가식과 꾸밈이 없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행위이며 몸부림이다. 택견은 오랜 관습과 행동양식에 따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 도양에 적응하며, 자연의 도리에 맞는 우리만의 몸짓이다[7]. 그리고 전통적인 송덕기의 택견 학습체계는 날개의 기본수 학습에서 상대와 수련 그리고 경기 수련을 거쳐서 실제 서기(결련·경기) 택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1982년 오장환이 문화재 신청과정에서는 신한승의 택견 학습체계를 신청했는데 송덕기택견과 다른 형태의 혼자서 익히기 과정과 마주메기기 과정(상대선수와 연습) 그리고 견주기, 창작한 본대퇴기(품새, 형, 투로)의 동일한 과정으로 학습체계를 최초로 명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정립하였다.

신한승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광식은 택견 전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전통택견협회, 원형보존협회,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 택견계승협회 등과 같은 각 단체들의 산발적 난립으로 인해 택견의 발전·보존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순수 놀이식 유희(遊戱)의 송덕기택견이 신한승에 의해 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레슬링 등의 학습체계(學習體系)를 인용(引用)하면서 송덕기류 민속놀이·유희(遊戱) 택견의 전래학습체계와 양분되어 전승되게 되었다.

신한승 택견을 사실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이승수는 택견의 운영조직과 재고(2006),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일본 유도의 영향,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영향에서 이승수는 레슬링의 규칙[27], 유도의 기술용어를 한국어의 민속적 용어로 차용했

다[28], 검도의 기술[29], 한국무예의 근대화 : 태권의 심사체계를 중심으로 에서는 태권의 심사체계는 무예수련하는 수행자를 위한 동기유발방법으로 근대화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다[30]. 이상과 같이 '근대택견'은 현대에 태권도의 전통기원설과 함께 태동되었다가 신한승에 의하여 재창조된 '창작무예(만들어진 전통)'가 되었다. 즉 신한승은 유도, 레슬링, 검도, 합기도, 태권도 등의 타무예의 운영체계를 응용한 근대택견의 놀이형태를 재개정하여 문화재 택견으로 현대화하여 창조한 것이다[28, 8]. 신한승은 당시 유행하던 무예(武藝)스타일의 태권도(跆拳道), 합기도(合氣道), 쿵푸(工夫) 등의 학습체계를 차용했다[8].

그리고 조성균은 현대 택견의 전통성과 송덕기·신한승의 갈등원인과 해소[38]를 연구했으며, 정재성은 자전거 탄 도사님[35]이란 제목으로 신한승의 일대기를 연구한 바 있다.

그 동안 택견은 송덕기의 언급처럼 전통적인 민간놀이 형태의 전수형태가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신한승이 다른 유포(스타일)의 형태로 전수된 사실 등이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택견이 한국고유의 전통무예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전통이라는 개념의 정체성, 현재성, 계속성의 관점에서 신한승의 택견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한승 택견학습 체계를 연구하여 순수놀이에서 문화재로 변천된 사항을 분석해 본다. 둘째,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의 신한승 택견의 체계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타무예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신한승의 택견기술의 변천에 대하여 탐색한다. 이러한 신한승 택견에 대한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존재한 택견의 마지막 전수자로 알려진 송덕기 택견의 기본원리와 현대 택견의 기술변천에 대한 유형적 변화를 규명하고, 택견사적인 의미를 재 조명하여 혼재되고 있는 각종 택견 단체들의 전통성 논쟁 및 택견의 스포츠화과정 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택견의 기원과 동작원리

택견의 발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택견이 갖는 특성으로 보아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한 무술이요 무예이다. 원시인들은 생존경쟁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종족을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각 부족간에 투쟁과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7]. 무술은 전투나 사냥을 위한 실제기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전투를 위한 신체의 단련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소멸되고 사라져 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무술에 관한 역사가 빈약하다. 일반적인 사서의 기록에 의존하여 무술사를 추측하지만 이것은 무예를 모르는 사람이 기록한 경우에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부를 믿을 수는 없다[15]. 안팎은 조선무사영웅전[21]에서 수박회를 바로 지금의 택견과 동일하게 보았다.

고려시대 충혜왕때 유도가 유행할 때 이를 수박(手搏) 혹은 권법(拳法)이라 하였다. 중략

수박회를 전문으로 개설하였으며... 중략

근래에는 청년들이 씨름보다 소이한 박회(搏戲)를 행함이 있던바 소위 '택견'이라 하는 것이 그 종류다.

이는 고려시대에 주로 손 기술에 의존하던 수박이 조선에 들어와서 발기술에 중점을 둔 탁견으로 발전되었고, 근대에 이 손기술과 발기술의 중요성이 거의 비슷하게 발달된 현상을 두고 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지어진 해동죽지에는 탁견회와 수박타는 분리되어 한시로 그 동작을 읊은 것이 전한다. 탁견(卓見)은 각술(脚術)이고 수박타(手癖打)는 수박 끝 수술이라고 설명되어 있다[24].

『황순구의 해동운기』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舊俗有脚術 相對而立 互相蹴倒有三法 最下者蹴其腿善者托其肩有飛脚術落其髻賭以此或執仇或賭奪愛姬自法官禁止今無是戲名之曰托肩

옛 풍속에 각술(脚術)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대하여 서서 서로 차서 거꾸러 뜨린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최하는 넓적다리를 정도를 차고 잘하는 자는 어깨를 차고 비각술(飛脚術)이 있는 자는 상투를 떨어뜨린다. 이것으로 혹은 원수도 갚고 혹은 사랑하는 여자를 내기하여 빼앗는다. 법과 관(官)에서 금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난이 없다. 이것을 탁견(托肩)이라고 한다.

百技神通飛脚術 輕輕掠過髻簪高

鬪花自是風流性一奪貂蟬意氣豪[24].

백가지 기술神通한 비각술(飛脚術) 가볍게 비녀와 상투를 스쳐 애인 때문에 싸우는 것도 풍류로운 일이며, 한번 모자를 빼앗으면 의기가 양양하다.

택견은 상대의 무릎을 차고 나서 경기·놀이가 시작되는데 상대를 밀어차서 상대의 몸통이나 상단에 맞으면 찬 사람이 승리하며 상대를 씨름처럼 잡고 넘기기도 할 수 있으며 유술처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종합 무예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상대를 차는 기술만이 유일한 승패의 학습체계 놀이였는데 문화재 지정에 따른 현대화,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검도, 유도, 레슬링 등의 학습체계를 차용, 응용하였다. 또한 택견은 중국 권법처럼 동작이 길게 흐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우쭐거리 튕기는 탄력에 그 중점을 두고 있고 중국 권법에 많이 쓰는 주먹은 없고 칼잡이라고 하여 손바닥이나 손아귀로 미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발을 많이 사용하므로 발로하는 기술이라 해서 오래된 우리말 사전에는 택견을 각희(角戲, 脚戲)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24].

택견은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운 곡선미의 미학이며, 몸짓은 우주와 인간의 합일체적인 행위예술이며, 상대의 몸을 이용하여 반격하는 힘의 원리에 의한 신체유희이며, 장소와 빈부에 관계없이 즐기는 민속놀이이다. 택견은 가히 미래의 한국무예문화상징(韓國武藝文化象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무예라고 생각된다.

신한승의 무예경력

신한승은 1949년 신홍대학(경희대학)에 입학하여 1951년 3월 30일 수료했다[35]. 그는 충주 한림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활동 했다. 신한승은 1946년부터 1961년까지 약 15년간에 걸쳐 아마추어레슬링 선수 및 임원으로서 활약했다. 구체적으로 1946년 11월에 개최된 전조선 아마추어레슬링대회에서 우승(당시19세)하였고, 1954년 10월 20일에 개최된 제3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시를 대표하여 밴텀급선수로 출전하였으며, 1956년 9월18일 개최된 호주 멜본올림픽 출전 최종선발전 대회에서 플라이급선수로 출전하여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27]. 신한승은 1943년부터 1977년 5월에 대한유도회로부터 유도 4단을 취득하여 30년간 유도의 기술을 연마해 왔으며, 충주 공업전문대학에서 도장식 유도를 지도하기도 했다[28]. 신한승은 택견도장을 마련하기 전에 충주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친구의 검도도장을 시간제로 빌려 무예교실을 개설했을 때, 수련생들에게 검도도 가르쳤다[29]. 그리고 충주의 청도체육관과 충북체육관의 태권도장을 빌려서 택견을 지도하기도 했다[35]. 신한승은 송덕기의 택견기술이 11수밖에 되지 않아 한국전통무예로서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타 무예의 수련체계를 차용하게 되는데, 이점이 택견의 정체성에 문제점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8]. 그런데 신한승은 오장환 교수를 찾아가 문화재가 되는 것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문화재 신청조사와 택견교본을 편찬하는 데 도움을 받아 택견의 이론서를 정립하게 된다[35]. 그런데 신성대²⁾는 『무학』에서 택견이 문화재가 된 이유는 제5공화국 시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국풍(國風)81'운동의 회오리 속에서 택견이 갑작스레 무형문화재 제76호로(1983년 6월1일) 되었다고 적고 있다[16].

신한승 택견의 학습목표

송덕기 택견의 학습체계는 일정한 순서와 체계를 갖춘 품새나 규칙이 없이 단일기술 학습이 중심인데 반하여 신한승의 택견은 순서와 일정한 형식체계가 있다. 즉 신한승 택견은 기술의 상하개념에 다른 위계적 배열과 학습체계 및 본대퇴기를

통하여 정형화, 체계화, 형식화, 도식화 되어 있다[12]. 태권 동작이 외형상 춤을 추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굽실거림과 능청거림이 연속적이면서 율동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우면서 어울리는 춤의 동작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상대를 예리하게 간파하는 날카로움과 심리적, 육체적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강력한 근육 작용이 잠재되어 있다.

태권 경기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대접(待接)은 항상 상대를 공격하기 쉬운 거리 내에 한발을 내주고 대치되어 있다. 이 점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공격으로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규칙인데 태권의 진취성과 격렬성을 엿볼 수 있다. 상대의 안전을 고려하여 늘리 치는데, 연하고 부드러운 순발력을 요구하고 힘을 집중하는데 필수적이며, 완충 효과를 내기 위해 멈칫거림은 정지(停止)가 아니라 근육작용(筋肉作用)을 추수려 올려 힘을 가중(加重)시킨다[1]. 태권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물의 운동법칙을 깨닫는 것이며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깨달음의 길(道)로 가는 것이다. 신한승 태권의 학습체계(學習體系)는 송덕기의 날개의 태권기술수련에서 상대 마주보고 태권수련으로 전환되었으며, 그리고 신한승의 태권경기 수련은 진일보하여 실제 스포츠경기로 발전되었다. 신한승은 1982년 오장환을 통하여문화재국에 제출한 수련내용을 보면 혼자익히기, 마주메기기(상대방), 견주기 형태의 세가지형태로 구성되어 있다[31].

그리고 신한승 태권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고유의 맨손무예를 발굴, 조사, 보존, 연구하여 민족문화와 인류문화에 이바지 한다. 둘째, 태권의 세계화, 대중화, 보편화에 기여한다. 셋째, 태권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고력, 건전한 율법, 건전한 생활 양식을 심어 건강 증진에 일조한다. 넷째, 태권을 통한 인간애와 사랑, 그리고 공생공존의 실천철학을 전개한다.

그러나 신한승은 현대태권단체들은 학습체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회 태권경기대회가 1985년 6월30일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송덕기는 품을 밝아야 한다는 견해와 신한승은 활개짓을 크게 휘둘러 모양을 내야한다고 견해로 나누어져 있었다[1]. 그 이후 신한승의 충주 '한국전통태권협회'는 정경화, 박만엽의 분열로 2002년 서울로 상경한 정경화의 주도로 '태권원형보존협회'로 분과하였고, 태권 스포츠화를 주도하는 이용복의 '대한태권협회'는 2007년 '대한태권연맹'으로 확대개칭하였다. 그리고 송덕기 선생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도기현¹⁾은 '결련태권협회'를 창설하고, 송덕기식의 순수형태의 태권전통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들의 학습체계와 전수형태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통태권협회와 원형보존태권협회는 태권의 원형보존과 보급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한태권협회는 국민생활체육과 태권의 스포츠화, 생활체육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결련태권협회는 전통적인 결련 태권을 학습의 주 모태(母胎)로 하고 있다[19]. 그러므로 현대 태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의 통합(統合)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중화,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태권학습 체계의 단일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신한승 태권의 외래무예도입

신한승은 실외의 태권학습 체계를 실내 문화·공연·스포츠로 변화시켰다. 특히 송덕기 태권의 개별형태를 종합적인 학습형태로 전환했으며, 한국의 태권도(跆拳道), 일본의 유도(柔道), 검도(劍道), 합기도(合氣道) 및 그리스의 레슬링(Wrestling)의 학습체계를 응용하거나 차용하여 한글화하거나 토착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태권 학습체계를 구성하여 전통무예로 인정받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래 무예(外來武藝)의 학습체계 도입으로 인하여 오늘날 태권이 문화재로서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비판이 일게 된다[16]. 이용복³⁾은 1970년대에 송덕기로부터 태권을 전수받은 신한승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악영향과 개인의 자의적 변형으로 원형이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31]. 신한승은 기본동작(서서 익히기, 나아가며 익히기)을 정하고 그 기술을 반복수련을 통하여 익힌 후 마주서서 상대방과 막음질, 마주걸이, 마주차기, 얼러메기기를 익히게 했다. 그리고 견주기는 차기기술이 없는 대걸이와 모든 차기와 걸이 기술을 구사하는 맞서기로 구분했다. 그리고 결련수(쌈수)를 복원하고, 본대퇴기(정형화 품새)를 만들어 기본동작의 기술과 술기의 연결성을 새롭게 창조하여 체계화·조직화했다[34, 36]. 신한승은 1973년 10월 3일 충주시에 태권전수도장을 설립했는데 조선일보를 통해 1973년 11월 9일(금) 7면에 '우리나라 전통무예 태권기원 「태권」을 보급'이란 제목의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신한승이 외래무예로부터 도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일본의 유도에서 체계화된 유도의 단급제도를 차용하여 송덕기 수련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동, 췌의 급수 구분제도를 신설했다. 둘째, 송덕기의 태권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던 실기 심사나 본대퇴기 12마당을 새롭게 창작하여 보급했다[8, 27, 36]. 그리고 유도의 기술(技術)을 차용하여 정력선용운동(精力善用運動)을 정통지르기 기본체조로, 도리(取, とり)는 걸이로, 가타(型, かた)는 본으로, 우치마타(内股, うちまた)는 허벅다리걸기, 아시바라이(足拂, あしばらい)는 다리후리기, 고소토가리(小外刈, こそうとがり)는 밖으로 꺾는 수로, 츠바메가에시(燕返, つばめかえし)는 몸을 반전시키는 수 등이 태권기술로 차용했다. 셋째,

1) 도기현(1962년생). 연세대학교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 체육석사,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송덕기선생으로 태권 사사받음, 서울한국체육관에서 태권도지도관에서 수련함. 현 결련태권계승협회장. 결련태권의 계승과 발전의 길을 모색 2004년부터 인사동에서 배틀태권을 개최.

검도 기술도 응용하게 되는데, 품(品, しな, じな, ひん, びん)의 세이타찌(せいたち, しょうりつ)는 정립(正立)으로, 운신(運身, 운신, うんしん)은 밟기 및 걸음걸이로, 집도(執刀, しつとう)는 활개짓으로, 세이시는 바로보기 정시(正視, せいし)로, 사키는 선으로(先, 사키, さき), 마아이는 거리로(間合, 마아, まあい, 틸, 타이밍), 스키는 극으로(隙, 스키, すき, 헛점), 칸게이코는 연습으로(寒稽古, 칸게이코, かんけいこ), 지게고는 수련으로(地稽古, 지게이코, ちけいこ), 계고는 수행으로(稽古, 게이코, けいこ, 수업, 학문, 연습) 변형시켰다. 네째, 합기도(合氣道, 태권도(跆拳道)의 경기기술을 차용하여 현대화된 경기방식을 창안하여 1985년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태권경기를 최초로 개최하게 되었다[32].

신한승택견의 기술체계

신한승은 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가라테의 수련체계를 일부 차용하여 택견의 현대화에 기여했으며[27, 8, 16]. 오늘날 택견 전수관에서 수련과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택견의 기술은 신한승의 학습체계를 따라서 대체적으로 3단 계의 순서로 전수되고 있다[13].

첫째, 혼자서 익히기(품밟기, 활개짓, 발질을 혼자 멋대로 익히기) 둘째, 마주 메기기(둘이서 마주 서서 반 약속 하에 마주 차고 마주 걸고 하며 익히는 것) 셋째, 건주기(실제로 겨루는 것)이다.

1-1, 품밟기

품밟기는 택견의 3요소 중 으뜸이며 공방에 있어서 독특한 몸짓을 나타내는 발놀림이다. 굽실대며 울동있는 택견의 몸짓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 품밟기 즉 발움직임(보법)이 원만해야 한다[24].

1-2, 활개짓

팔질의 기본법은 활개짓이다. 모든 공격과 방어가 활개짓에서 나온다. 활개짓은 품밟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1-3, 발질 및 손질

칼채기(내밀기)는 원품으로 서서 엄지와 검지를 벌려 편 손으로 목높이로 내밀기, 건어차기는 원품으로 서서 발을 들어 발등으로 턱높이를 건어찬다. 찌차기는 발을 들어 발등으로 안에서 밖으로 찌서 어깨 높이를 찬다. 후려차기는 발을 들어 발등으로 밖에서 안으로 후려서 어깨 높이를 찬다. 곧은발질는 발장심으로 명치 높이를 곧게 찢러찬다(높게차면 명치기, 낮게차면 허벅지).

1-4, 나가며 익히기(다니며 익히기)

정지된 상태에서의 택견의 기본기술(서서 익히기)을 응용하

여 수련하는 과정이며 손기술과 발질을 함께 사용하는 수련 단계이다[34]. 발질에는 상대를 차서 넘어 드리는 발질과 상대를 걸어당겨 넘어뜨리는 발질, 상대가 차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발질 등이 있다[31].

1-5, 마주 메기기(상대연습)

- 1) 막음질(둘이 서로 맞서서 기술을 메기고 받고 하는 연습)
- 2) 얼러메기기

둘이 맞서서 활개짓을 같이 하면서 품을 밟고 움직이며 한 사람이 수를 걸거나 차오면 한 사람은 받고 피하고 하는 연습, 될 수 있는 한 혼자 익히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를 번갈아 가며 숙달될 때까지 반복 연습한다.

3) 마주차기

둘이 마주서서 거리를 재고 제자리에서 한 사람이 차면 한 사람은 막고 차기를 번갈아 가며 빨리 정확하게 차고 막고 하는 연습을 한다.

4) 마주걸이

둘이 마주 무릎을 맞대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밀다 한 사람이 수를 걸면 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연습을 번갈아 가며 한다.

5) 건주기(상대)

(1) 대걸이

맞서서 활개짓을 자유로이 하며 품을 마음대로 밟으면서 아랫수(발걸이)만 가지고 걸어 넘기지만 하는 건주기

(2) 맞서기(겨루기) 서기택견

택견의 실전 응용 수련법이 맞서기이다. 몸에 베어 있는 품밟기와 활개짓을 중심으로 공격과 방어를 한다. 현재 많은 무예가 공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택견은 공수 양면을 중요시한다. 택견의 모든 기술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품밟기와 활개짓은 물론 손질과 발질의 여러 동작이 마치 한 동작처럼 나타난다. 택견의 모든 동작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연결된다.

(3) 겨눔수

모든 겨눔수는 발따귀, 물구나무 쌍발차기, 무릎대치기(대뒤집기), 어깨치기, 뱅뱅이질, 두발 쌍걸이 등 몇가지 특수한 기술을 빼고는 혼자 익히기의 기본기가 변화 응용된 것이 대부분이다[26, 31].

1-6, 본대퇴기

본대퇴기는 신한승선생에 의해 체계화, 정형화, 도식화시킨 것인데[36], 모두 열두 마당으로 구성된 품을 밟으며 활개짓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수를 멋있게 보여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다[36, 8]. 택견관에서 마당(경기장)을 돌며 한

마당째다 두 마당째다 하며 모두 열두 바퀴 돌면서 열두 마당을 한다. 본대뵈기는 처음마당의 앞의 거리 차렷, 절(경례), 녀장다리 원품, 좌품, 활개짓 두손 크게 작게 제치기 3회, 무릎치기, 칼잡이 빗장걸이, 발장다리하며 오금밧기, 두마당은 활개 한손제치기 3회, 건어차기(발등차기), 후려차기(발등 앞돌려차기), 어리대기, 가로판죽, 덧걸이 세마당은 활개짓 맞쳐들기 3회, 빗장걸이하고 어리대기, 곧은발질(명치기, 앞차기), 키재기, 낮게 녀장다리 우품, 옆발질(옆차기), 찌차기(빗차기), 앞판죽(모두걸기), 안우걸이(오금걸기) 네마당은 활개 한손헤치기와 활개짓 맞돌리기, 두상잡이, 눈질러차기(발바닥밀어차기), 내차기(내려차기, 찍어차기), 잡아대고 칼잡이, 안짱다리(안뒤축) 칼잡이, 낚시걸이, 다섯마당은 활개 한손굽기, 곧은발질(앞차기), 두발낭상(뛰어앞차기), 가로밀기, 오금차기, 낚시걸이(뒀 낚시걸이), 여섯마당은 활개짓 두손 앞뒤로 흔들며 품밧기, 걸치고 돌개치기(뒤돌아 찌차기), 어깨치기, 안짱걸이, 중방걸이, 일곱마당은 활개짓 두손 크게 작게 굽기, 각음다리, 발등걸이, 세워밀기, 무릎걸이, 좌우 발따귀, 손뺨비비고 활개앞으로 내퍼기, 여덟마당은 활개 옆으로 들어퍼기, 활개짓 멋대로 재게 흔들며 품밧기, 활개 한손굽고 한손제치기, 활개 위로 올려퍼기, 날치기, 낮게 녀장다리 우품, 거리재고 활개짓쳐들며 품밧기, 거리재고 활개짓재고 활개짓돌리며 품밧아돌기, 활개 가새북치기, 활개 안으로 돌리며 품밧기,땀다리, 활개짓 두손 흔들며 품밧기, 팔짱끼고 서기이다. 그리고 뒤에거리 아홉마당은 녀장다리 원품, 손뺨비비고 좌품, 녀장다리 좌품, 활개짓 두손 크게 굽기, 활개짓 멋대로 재게흔들며 품밧기, 활개한손 굽고 한손제치기, 후려차기(앞돌려차기)판죽, 발등걸이(발바닥으로), 열마당은 발장다리치며 오금밧기, 활개돌리며 눈질러차기, 두발낭상, 건어차기(돌아서), 열한마당은(뒤에거리 세마당) 안짱걸이 왼손동시에 활개짓 맞돌리기 오른손 칼잡이중방걸이, 물구나무 쌍발차기, 활개짓 두손 흔들며 품밧기, 열두마당(뒤의 거리 네마당) 찌차기(빗차기), 활개 가로막기, 두상잡이(상모돌리듯), 잡아대고 칼잡이, 덧걸이(씨름덧걸이), 활개짓 두손 크게 굽기, 무릎걸이, 눈질러차기(밀어차기), 내차기(내려차기, 찍어차기), 활개짓 굽으며(앞으로 내디딘 오른 품밧기 원품으로 돌아오며 오른손 활개짓굽기를 하고 왼발을 들어 왼손 활개짓 굽기를 한다음 이어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오른손 활개짓 굽기를 하고 다시 왼발을 들어올리며 왼손 활개짓 굽기를 한다음 왼발을 내딛고 가볍게 올려 놓는다). 활개 한손헤치고(좌품) 오른발을 들어 내디디며 동시에 오른손 헤치기를 하고 왼발이 앞으로 나가며 좌품 자세를 취한다. 활개 한손헤치고(우품), 좌품, 원품, 손심내기(좌우1회)로 12마당이 마무리 된다. 본대를 다 보일 때까지 겨를 상대가 나서지 않으면 판막음을 했다는데 보통 열두 마당까지는 가질 않고 보통 여덟 마당에서 마친다고 한다. 또한 본대뵈기는 상대와 겨루기

전에 몸을 푸는 것과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거나 상대방 선수가 나설 때까지 공백을 메우는 여흥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택견의 본대뵈기는 일정한 연무선이나 동작의 차례가 없고 단지 자유롭게 자기가 즐겨 쓰고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연결시켜 펼쳐 보이는 것으로써 말 그대로 본대보이기인 것이다. 택견의 본대는 기본수를 익히고 난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 학습정도에 따라 열두 마당의 형식을 차례로 익혀가면서 이미 체득한 형식의 구절은 서로 연결하여 수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앞의 거리 여덟 마당과 뒤의 거리 네마당을 합하여 모두 열두 마당이다[24].

V. 결 론

문화재는 정통문화의 구체적인 현상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재(文化財)는 원형이 보존 되어야만 문화재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유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객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택견의 학습체계도 원형을 보존하고 보급해야만 한다. 택견의 학습체계는 송덕기의 민속(民俗)놀이 유희 중심의 자연발생적 신체문화에서 1980년대 신한승에 의하여 근대식 동양무예 학습 체계가 도입되어 오늘날의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특히 신한승은 종래의 송덕기 택견의 학습체계에서 놀이적인 요소와 유희적인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외래 무예의 학습체계를 차용, 응용하여 스포츠화, 문화재화, 공연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택견의 정립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1983년 6월 1일 문화공보부장관(2008년 2월24일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 택견 보유자로 인정되는 영광을 안겨준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한승의 택견은 만들어진 전통무예라는 사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한승이 택견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체계화하고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과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 경기, 서울 지방의 택견 전수자로 유일한 송송덕기 택견은 기술 구성은 일정한 체계가 없는 날기술 중심의 놀이 형태로 전래 되었으나, 신한승에 의하여 체계적인 구성을 가진 무예로 발전하게 되고, 굽기야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둘째, 신한승은 날기술로 전래되어 오던 택견을 체계화 하면서 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가라테의 수련 체계와 기술을 일부 차용하여 근대화 시켰다. 이 과정에서 송덕기 택견이 원형대로 전수되지 않고 변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신한승은 정통 택견에는 없던 굽

수 구분제도와 실기심사,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하는 본대퇴기 12마당 등을 만들고, 스포츠화를 추구하여 현대적인 학습체계와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논한 신한승 택건을 통해 택건의 원래 형태와 기술변천 및 구성에 대한 시대적·환경적 윤곽을 재조명 할 수 있었으며, 전통화 과정에서 혼재되고 있는 각종 택견 단체들의 논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택견은 2007년 2월26일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로 인정받아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단체로서 발전을 모색하는 '대한택견협회'의 독주에 '택견 원형보존협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경기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통을 보존하려는 사수파와 전통을 발전시켜 대중화, 세계화, 스포츠 경기화로 전개하려는 단체들로 인하여 각 단체들의 학습체계도 문화재 지정 당시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2008년에는 '대한택견연맹' '택견원형보존협회' '한국전통택견협회' '결련택견협회'의 대승적 화해를 통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습체계를 정립하고, 송덕기, 신한승, 정경화로 이어지는 문화재 택건을 계승·발전시켜 세계인이 즐기도록 마케팅 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강기석, 태권도 반세기. pp. 356-35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2001.
- [2] 강권표, "유도교육의 학교체육 활성화 과제", 선무학술논집, 제 14집, p. 73-98, 2004.
-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무예단체현황, pp. 59, 도서출판 무지개, 서울, 2003.
- [4] 에드워드셀즈(저)/김병서·신현순(역). 전통, pp. 24-25, 민음사, 서울, 1992.
- [5] 김신탈, 택건의 실체와 원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원, pp.32-33, 1999.
- [6] 김용옥,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서울, 1990.
- [7] 김재호, 택건의 몸짓이 지닌 민중적 요소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p.3, 1996.
- [8] 도광식, 택견 전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p.2, 24, 5, 2000.
- [9] 도기현, 택견 그리고 나의 스승 송덕기, pp.106, 103, 102, 102, 동재, 서울, 2003.
- [10] 도기현, 우리무예 택견, 동재, 서울, 2006.
- [11] 문화관광부, 생활체육단체현황, pp. 인터넷 사이트, 2005.
- [12] 박경호, 유도기술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2.
- [13] 박범남, 택건의 문화적 실체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pp.43, 1999.
- [14] 박영길, 택건의 현대사적 탐색, 석사 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pp.39-49, 2004.
- [15] 박종관, 택견, pp.17, 서림문화사, 서울, 1983.
- [16] 신성대, 무덕, pp.187, 186-203, 187, 동문선, 서울, 2006.
- [17] 심승모(역), 검도와 인간의 道, 다문, 서울, 2006.
- [18] 신재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83.
- [19] 석춘희·강성구, "전통무예 택건의 활성화 방안", 성문사, 충주, pp.143, 2003.
- [20] 손라범·이숙자역, 민중옛센스 일한사전, pp. 573, 서울, 2001
- [21] 안광(자산), 조선무사영웅전, pp.62, 집문당, 서울, 1919.
- [22] 안영이, 다시쓰는 한국바둑사. p.28, 서울, 2005.
- [23] 안정덕·박영길(2005), "전통무예 택건의 발달과정에 대한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6호, pp. 761-770.
- [24] 오장환, 택견, pp.52-53, 63, 173, 영인문화사, 서울, 1993.
- [25] 유원식, 유도철학과 수행지침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3.
- [26] 임동권, "택견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46호", 문화재관리국, 1982.
- [27] 이승수, "택견의 운영조직 再考", 한국체육사학회 동계세미나, pp.57-69, pp.60, 62, 63, 2006.
- [28] 이승수,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일본 유도의 영향", 비교민속학회 제31집, pp. 367-387, pp.371, 377, 2006.
- [29] 이승수,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영향". 한국체육사학회 제18호, pp.37-49, pp.47, 39, 2006.
- [30] 이승수, "한국 무예의 근대화 : 태권의 심사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6호, pp. 51-64, pp.5, 2007.
- [31] 이용복, 민족무예택견, pp. 188, 38, 300, 학민사, 서울, 1995.
- [32] 이용복, 한국무예택견, pp. 371, 371, 371, 215, 학민사, 서울, 1990.
- [33] 이하래, 한국유도발달사, 보경문화사, 서울, 1990.
- [34] 정경화, 택견원론, pp. 20, 88, 88, 212, 보경문화사, 서울, 2002.
- [35] 정재성, "자전거 탄도사 신한승", 한국의 전통 택견협회, pp. 165-186, pp. 180, 171, 178, 74, 2003.
- [36] 정재성·김형목·박영길, "택견 경기방식의 새로운 통합문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2권, 2호, pp. 71-85, pp. 74, 74, 74, 2007.
- [37] 조성근, "민속지학적 관점에 의한 택건의 전수형태와 현대적 의의", 한국체육사회지 18, p.51-67, 2006.
- [38] 조성근, "현대 택건의 논쟁거리 전통성", 한국 체육사학회지 제 13권, 1호, pp. 31-47, pp.31, 2008.
- [39] 김정미. <http://www.kyoungdang.com/>
- [40] <http://www.taekgyeon.co.kr/main.htm>
- [41] <http://www.mookas.com>

- (1) 정경화(2002). 택견원론. 신한승에 의해 택견이 체계화되고 정립된 국가 지정 문화재. p.20
- (2) 신성대(2006). 무덕. 태권도와 택견 참조. p.186-203 택견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 제검토가 있어야 한다. 취소할 명분이 없으면 무예에서 놀이로 바뀌야한다 자신이 없으면 TV진품명품에 들고 나가 감정을 받아야 한다.
- (3) 이용복(1995). 택견연구. p.33; 안영이(2005). 다시 쓰는 한국바둑사. p.28. 단·급제도(段級制度)는 수련자의 동기유발효과. 바둑에서 일본인이 무술에 적용. 이 제도의 기원은 중국 송나라의 장의(張擬)의 『기경(棋經)』의 위기구품, 위기구품(圍棋九品)은 수졸(守卒), 약우(若愚), 투력(鬪力), 소교(小巧), 용지(用智), 통유(通幽), 구체(具體), 좌조(坐照), 입신(入神) 등 구분. 일본에서 1-9단사용. 단의 품계를 아홉 단계 9를 최상의 경지『역경』에서 9라는 숫자를 성수(成數혹은 聖數)와 관련 있다.